

# ‘뉴삼성’ 분수령

22일 그룹80주년  
23일 삼성전자 주총

# JY, 어떤 메시지 던질까

침석뎌 경영복귀 후 첫 공식자리  
사내·외 이사 대대적 교체에  
액면분할 통한 ‘국민주’ 전환  
창립 80주년 등 ‘참석’에 무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오는 23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관심은 석방 이후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참석 여부다. 2016년 10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후 지금까지 등기이사직을 유지해 온 이 부회장이 이번 주총에 참석한다면 석방 이후 첫 공식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주총은 삼성그룹 창립 80주년과도 맞물려 의미가 남다르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이 ‘뉴(New) 삼성’의 청사진을 선보일 수 있는 최적의 무대라는 분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빌딩

5층 다목적홀에서 제4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총은 뉴삼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분석이다. 사내·외 이사의 대대적 교체가 이뤄지고, 액면분할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이 ‘황제주’에서 ‘국민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변화의 폭이 크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참석여부도 주목된다.

특히나 오는 22일 삼성그룹이 창립 80

주년을 맞는다. 삼성의 모태인 삼성물산은 1938년 3월 1일 고(故) 호암 이병철 회장이 ‘삼성상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그룹의 근본이 됐다. 1988년 3월22일 당시 이근희 삼성 회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제2 창업을 선언했고 기념일은 당시부터 이날로 바뀌었다.

삼성에는 이날 별도의 행사 없이 사전 제작한 사내방송을 방영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의 특별 메시지는 없다.

그러나 주총 참석 가능성에는 무게가 쏠린다. 현재까지는 참석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부회장은 석방 이후 경영복귀에 앞서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공개하기 위한 장소로 주총이 유력하게 재계의 전망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제외하고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주총에 참석한 적이 없던 만큼 이 부회장 참석시 등장만으로

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분석이다.

특히나 이번 주총은 삼성전자 설립 이래 첫 주식 액면분할이라는 대형 안건을 다루는 자리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31일 이사회를 열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50대 1의 주식 액면분할 시행을 결의했다. 액면가를 50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그동안 삼성전자 주식이 가격이 너무 비싸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사기가 어려워졌지만 앞으로 거래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삼성전자에 액면분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당시 구속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통해 전격적으로 액면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말 사장단 인사에서 대표이사에 오른 김기남·김현석·고동진 사장을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한다. 이사회 의장에는 지난해 말 CFO(최고재무책임자)에서 물러난 이상훈 사장이 선임

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사외이사 과반수를 유지하기 위해 3명을 새로운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과 김선욱 이화여대 법대 교수, 박병국 서울대 공대 교수 등으로, 삼성전자 사외이사로는 이례적으로 외국계 기업 대표와 여성이 내정됐다.

이 부회장이 나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선안 및 투명경영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분의 연쇄 고리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타개라고 압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사회외 투명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주환원정책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주총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지배구조 개선의 의지를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삼성전자



## 글로벌 점유율 20% 돌파

삼성 반도체 매출액 53% 급증  
SK 점유율 6.2%... 업계 3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도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메모리 강자’인 국내 업체들의 시장 입지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HS마킷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반도체 매출액은 전년보다 53.4%나 급증한 총 620억3100만달러로, 글로벌 점유율 14.5%를 기록했다.

지난 수 십년간 ‘부동의 1위’로 여겨지던 미국 인텔(614억600만달러·14.3%)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SK하이닉스가 266억3800만달러로, 6.2%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5.3%), 브로드컴(4.0%), 퀄컴(3.9%)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들을 제치고 전년보다 2계단 상승한 3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계 점유율은 20.7%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반도체 5개 가운데 하나는

한국 브랜드인 셈이다.

삼성전자는 10년 전인 지난 2008년만 하더라도 반도체 매출이 169억200만달러로, 인텔(339억9500만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점유율 6.5%에 그쳤다. 그러나 2010년에 200억달러대, 2013년 300억달러대, 2016년 400억달러대로 진입하더니 지난해에는 600억달러대까지 치솟았다.

SK하이닉스도 지난 2008년 60억2300만달러(점유율 2.3%)에 불과하던 매출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81%나 급증했다. 업계 순위도 10년 전에는 19위 안팎에 머물렀으나 수직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올 들어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를 메모리 부문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C인사이드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전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조정했다.

특히 메모리 부문 양대 축인 D램과 낸드플래시의 경우 올 들어 평균판매단가(ASP)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3%에서 37%, 10%에서 17%로 올려 잡았다.

앞서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도 올해 반도체 시장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7.0%에서 9.5%로 상향조정했다.

/정은미 기자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 외국인, 기관 매매 종목

# 이제는 실시간이다!

## 증권사 실시간 수급 솔루션 THE HINT

‘더 힌트’는 실시간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를 추적해 종목을 포착하고 매매의 타이밍을 찾아내는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수급차트

종목진단

누적금액

누적강도

시장분석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거래시 수수료율은 기초 수수료율(0.014~0.5%) + 0.09%이며, 기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당시의 공식적인 조사 분석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며, Hint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증권데이터투자연구소의 책임하에 운영됩니다. \* 본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편안을 돕기 위한 보조시스템으로 수익 보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업의 심사필 제 18-00473호(2018.01.25~2019.01.24) CCM번호-180124-150

하나금융투자